

요산 김정한 소설에 나타난 타자성

최 강 민*

차 례

- | | |
|-------------------------|-------------------------|
| 1. 식민지의 타자와 민족문학 | 4. 강한 민족주의와 계몽적 거대서사 |
| 2. 민족적 타자의 발견과 '길'의 상징성 | 5. 타자의 문학적 형상화 |
| 3. 민족적 타자의 복원과 근대화 비판 | 6. 민족문학의 계승과 타자의 미흡한 귀환 |

국문초록

조국과 민족을 중시하는 김정한의 계몽적 거대서사는 문제적 개인을 통해 당대 현실 모순을 형상화해 좀더 나은 세계를 꿈꾼다. 이러한 그의 문학은 민중적 리얼리즘, 민족문학으로 요약된다. 김정한은 소설에서 거대 권력과 자본이라는 주체에서 소외된 민중적 타자인 농민, 도시 빈민, 병자, 여성 등을 서사의 중심에 둔다. 특히 그의 문학은 체제의 금기에 의해 발설하지 못하는 민중적 타자들의 은폐된 진실을 전달하는 데에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다. 역사와 현실을 강조하는 김정한은 당대의 소외된 타자들을 대변하는 비판적 문제제기로 시대적 금기를 깨뜨렸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창작된 김정한의 소설인 「그물」, 「사하촌」, 「옥심이」 등이 비교적 리얼리즘의 형상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966년 이후 창작된 다수의 작품들에서 문학적 형상화는 약화되고 비판적 문제제기가 강하게 등장한다. 민족주의와 높

* 가톨릭대 강사

은 윤리성에 기반해 당대의 구조적 현실 모순을 비판하고 민중적 타자를 옹호한 김정한의 저항문학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주제어 : 김정한, 주체, 타자, 민중, 민족, 계몽적 거대서사, 민족문학, 저항문학, 리얼리즘, 근대화

1. 식민지의 타자와 민족문학

20세기 한국의 현대사는 ‘근대’라는 화두로 출발한다. 일제 식민지라는 만 35년의 역사적 굴곡과 파행은 자주적 근대화의 실패가 초래한 역사적 산물이다. 1945년 미국으로 대표되는 연합군의 승리는 식민지적 종속과 굴욕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조선에 가져온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이어진 미소의 헤게모니 대립과 이승만과 김일성으로 상징되는 좌우의 갈등은 분단시대를 개막시킨다. 해방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의 등장을 의미했다. 동족상잔의 내전이자 국제전이었던 한국전쟁은 분단의 확인이자 심화 과정이었다. 이후 남북한 체제는 ‘자본주의/사회주의, 반공이데올로기/반미이데올로기’라는 냉전의 패러다임을 통해 적대적 정체성을 확보해나간다. 양자를 중재할 중간지대는 체제의 탄압 속에 억압되거나 소멸된다. 박정희 군사정권과 김일성 유일정권은 상대방을 강력한 적으로 호명하는 적대적 대립을 통해 자국내의 독재 체제를 유지 강화시킨 쌍생아였던 것이다. 근대국가가 대개 민족을 주체로 하여 성립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단을 민족적 모순으로 규정 짓게 하면서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을 부여한다. 한국전쟁 이후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모순과 근대화의 모순이라는 2대 과제와 힘겹게 싸워야 했다.

데카르트 이후 근대는 주체 중심의 철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특히 헤겔은 주체의 정신과 의식만이 주체의 본질을 이룬다고 하면서 욕

망과 무의식 등을 타자화 했다. 헤겔은 역사를 주체가 정반합으로 주체의 의지를 동일화 하는 과정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주체 중심의 철학 속에 “근대 서구의 지식의 주체는 ‘근대 서유럽의 합리적인 백인 이성애적(heterosexual) 남성’이다.”¹⁾ 반면에 주체의 동일성에 포섭되지 않는 비대칭적 관계의 동양, 욕망, 동성애, 유색인종, 여성 등은 타자로 분류되었다. 서구적 주체는 자신의 문명을 근대라 호명하며 그 이외의 것을 야만으로 취급한다. 서구인들은 동양 침략을 문명화의 사명으로 호도하는 기만적 오리엔탈리즘 담론을 생산했던 것이다. 이러한 서구를 재빨리 모방한 아서구(亞西歐)의 일제는 일제식민지 시대에 천황을 숭상하는 일본 남성을 식민지의 주체인 내지인으로 설정하고, 조선인을 식민지의 타자인 외지인으로 규정했다.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의 식민사관과 대동아공영론은 조선인을 이용하기 위한 기만적 담론이었을 뿐이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도 압축적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세력들을 타자로 분류한다. 조국근대화 담론과 물리력을 앞세운 군사정권은 민중을 지배층인 주체의 의지에 순종해야 하는 수동적 타자로 취급했다.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주인/노예, 지배/억압, 시혜자/수혜자’라는 대립적 종속 관계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작가 김정환(1908-1996)은 거대 권력과 자본을 지닌 주체에 의해 억압된 타자(또는 민중)들의 아픔과 감춰진 진실을 형상화 하는 데에 평생을 헌신한 작가이다. 김정환의 소설에서 “소외된 민중은 대개 소작인, 도시 변두리의 서민, 문둥이,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 교사처럼 권력의 횡포에 저항할 힘이 없는 지식인들이다. 반면 이들을 억압하는 계층에는 일제 식민통치 세력과 그 비호를 받는 지주계급, 권력을 등에 업은 유력자와 모리배들이 속한다.”²⁾ 이처럼 김정환의 소설에서 타자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농촌, 계급적으로 소작농민이나 도시 빈

1) 최종렬, 『타자들』, 백의, 1999, 9쪽.

2) 이기인, 「김정환 소설의 심미성과 작가의식」, 『김정환』, 새미, 2002, 146-147쪽.

민, 성별로 여성, 몸 상태로 보면 병자들이다. 김정한은 주변부의 타자들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여 이들의 권익을 신장시켜 좀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김정한의 소설들은 김병걸, 백낙청, 염무웅 등에 의해 흔히 민중적 농민문학, 민중적 리얼리즘, 민족문학의 정통으로 평가되어 왔다. 전승주는 김정한의 문학이 “1950년대 이후 우리 문학사에서 실종되었던 민족적 삶의 문제를 1960년대 이후 복원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중심 회복을 가능케 하였으며 민족문학론이라는 문학사의 중심 언술을 가능하게”³⁾ 만들었다고 높게 평가한다.

요산 김정한에 대한 문학 연구는 진보적 문학 연구자와 문인,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1980년대까지 김정한 문학에 대해 찬사와 옹호의 연구 성과물이 많았다면, 김정한이 사망한 1996년 이후에는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 김정한 문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한 소설에 나타난 타자성을 중심으로 김정한의 문학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자’는 기존 중심에서 소외된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대상과 원인에 따라 다양한 타자가 등장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도 특히 민족적, 민중적 관점에서 파악한 소외된 타자의 개념을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김정한의 소설에 나타난 타자성의 문제는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일부 다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김정한 소설⁴⁾에 나타난 타자성의 측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전승주, 「민족적 삶의 복원을 위한 역사에의 물음」, 『한국소설문학대계 김정한·최정희』 31, 동아출판사, 1995, 592쪽.

4) 김정한 소설의 연구 텍스트로 설정한 것은 『낙일홍』(1956)과 『인간단지』(1971)를 기본으로 했고, 이 창작집에 없는 작품에 한해 『김정한 소설선집』(1974)과 기타의 책을 참조했다.

2. 민족적 타자의 발견과 ‘길’의 상징성

1908년 경남 출생의 작가 김정한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유소년과 청장년 시절을 보낸다. 김정한은 민족의식이 강한 명정학교에서 범민족 항일 독립의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우들과 함께 만세를 부른다. 일제는 무력으로 3·1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해 많은 사상자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민족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집단적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 베네딕트 앤더스는 『상상의 공동체』에서 근대의 산물인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임을 언급한 바 있는데, 식민지 조선인들은 3·1운동의 봉기 속에 일본과 대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족의식을 발견했던 것이다. 3·1운동은 대내적으로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대외적으로 상해의 임시정부를 탄생시킨다. 김정한도 식민지 주체인 일제와의 대타적 투쟁 체험 속에 식민지의 타자인 조선인의 열악한 위치를 절실하게 깨닫는다. 3·1운동은 김정한에게 강인한 민족주의 정신을 낳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그 이후 김정한은 1929년 교원연맹 조직 사건에 연루되어 교사직을 그만두게 된다. 이어서 그는 1932년 양산 농민봉기 사건과 1940년 치안유지법에 저촉되어 감방 신세를 지게 된다. 이러한 시련의 과정 속에 김정한은 문학에 눈을 뜨게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김정한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꼭 문학에 반해서, 혹은 문학가가 되고 싶어서 문학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 조국없는 소년들의 감정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길 이외에는 위안과 그보다 삶의 의욕같은 것을 가질 구멍이 없었기 때문이다.”⁵⁾라고 고백한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김정한은 일제의 탄압과 그것에 맞서는 저항 속에 식민지의 타자인 처지를 온몸으로 체험한다. 식민지 주체인 일제는 ‘일본 우월, 조선 열등’이라는 일본판 오리엔탈리즘의 담론을 통해 자신의 지배자적 위치를 확고하게 한다. 이때 식민지의 타자들은 일제란 식민지

5) 김정한, 「저항의 물결 속에서」, 『낙동강의 파숫군』, 한길사, 1978, 72쪽.

주체에 의해 끊임없이 차별되고 배제된다.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배제의 논리는 특정 집단의 동일성 형성의 논리이며, 동일성의 원리는 타자를 배제하고 희생자를 차별하는 논리 그 자체이다.”⁶⁾ 결국 일제의 조선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식민지 조선이라는 타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자 동시에 식민지 주체인 일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필수 작업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체험은 양상은 다르지만 계속된다. 일제를 대신한 극우반공독재체제는 비민주적 행위와 일방적 근대화 추진을 통해 민중적 타자들을 소외시켰던 것이다. 김정환의 소설이 극단적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흔히 보여주는 것도 작가 자신이 경험한 차별과 배제의 타자성 체험에서 비롯한다. 김정환의 소설은 이렇게 소외된 민중적 타자를 역사의 주체로 복귀시키려는 저항적 글쓰기이다.

작가 김정환의 직업은 일제식민지 시기에는 교사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교수로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의 대부분의 삶은 학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근대의 도정에서 선각자로서 지식인인 선생은 무지한 존재를 깨우쳐주는 계몽적 역할을 담당한다. 김정환의 소설에서 ‘길’이라는 공간이 상징적 의미를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도 작가의 계몽적 거대서사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의 소설에서 ‘길’은 당대 현실이자 동시에 민중적 타자들이 나아갈 미래의 역사이다. 「축생도」, 「수라도」, 「사뱃재」는 ‘길’에 관한 작가의 관심이 드러나는 대표적 소설들이다. 「수라도」(1969)는 허진사택에 시집온 가야부인이 험난한 일제식민지 시기를 꺾듯하게 견디면서 살아온 일생을 그린 중편이다. 이 소설의 제목인 ‘수라도(修羅道)’는 원래 불교용어로 아수라가 살고 있는 곳으로서 끊임없이 피 흘리며 싸우는 폭력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말한다. 김정환은 일제가 지배했던 시대를 수라도로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말기를 배경으로 한 「사뱃재」(1971)는 병든 누이를 찾아가는 송

6)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이수정 옮김, 민음사, 1999, 201쪽.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병든 누이는 식민지 조선을 알레고리적으로 상징한다. 송 노인은 병든 누이에게 줄 약(배미술)을 가지고 버스에 탔다가, 일본순사에게서 그것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만다. 버스가 도중에 고장 나 멈추자 순사와 대동아전쟁에 참여할 학도병, 그리고 운전수가 남고 다른 손님들은 버스를 밀기 위해 내린다. 이때 운전수, 순사, 학도병은 식민지의 주체이고 그것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식민지의 타자를 상징한다. 버스에서 내린 타자들은 ‘역사, 역사!’라고 외치며 버스를 밀게 된다. 여기서 ‘버스’는 폭력적인 일제식민지 시대를 상징하는 알레고리적 기표이다. 고장난 버스에서 내려 길을 재촉하던 송 노인은 얼마 후 버스가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식민지의 주체)은 대부분이 죽고, 버스를 밀고 있던 다른 손님들(식민지의 타자)만 생존했던 것이다. 이러한 서사의 전개를 통해 김정환은 그릇된 길로 가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존재들은 궁극적으로 파멸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역사적 순리를 상징적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작가 김정환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멀리 트인 메깃들로 표현되는 조국의 광복이 오려면 아직 멀었지만, 송 노인과 누이 부리부리한 청년이 걸어가다 보면 분명 당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운전수가 실수를 했다잖아?」

그저 예사롭게 물었다.

「글쎄요(글쎄요)……?」

누이 부리부리한 청년은 확실찮은 대답을 했다. 송노인은 굳이 그의 표정을 살피려고도 하지 않았다.

「집이 독메에 있다잖아?」

「야, 잭뚝 뚝 가서……」

둘은 이러고서 묵묵히 붓득길을 재게 걸었다. 멀리 트인 메깃들을 건너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⁷⁾

7) 김정환, 「사뱃재」, 『인간단지』, 한얼문고, 1971, 335쪽.

앞의 소설들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면 「축생도」(1968)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가난한 농민의 아내인 분통이는 병이 들어 죽어가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가 거부된다. 이때 돈만 밝히는 근대식 병원의 의사는 부유한 지배층을 상징한다. 목숨이 위태로운 분통이는 가축병원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생명을 간신이 구하게 된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치료를 했던 가축병원 의사는 오히려 국민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다. 작가 김정한은 이 사건을 통해 가난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취급 받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과 근대화된 세계를 비판한다. 소설의 제목인 ‘축생도(畜生道)’는 원래 불교용어로서 난폭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짐승들의 세계를 의미한다. 김정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축생의 ‘길’로 규정함으로써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발하면서 현실 변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처럼 김정한은 소설에서 ‘길’이라는 상징적 제목이나 설정을 통해 ‘일제=가진 자=타락한 지배층=가해자=邪道=악/ 식민지 조선=못 가진 자=억압과 수탈의 대상인 피지배층=피해자=正道=선’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의 서사를 애용한다. 김정한의 소설에서 길은 단순하게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는 실존적 창구이자 개별적 자아가 추구해야 할 역사의 길이자, 민족적 자아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道=도리’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김정한의 소설에서 주요 작중인물들은 때로 침묵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도망가지 않는다. 김정한의 소설에서 민중적 타자들은 극한상황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저항적 주체이기도 하다. 비록 현실에서 패배할지언정 이들은 비판적, 저항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 문제적 개인들이다. 작가 김정한은 역사가 일시적으로 퇴행할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히 발전한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 김정한의 소설에서 끝없이 앞으로 이어진 길은 유토피아적 낙관주의에 기반한 작가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상징

화시킨 표상인 것이다.

김정환의 개별 소설에서 가해자인 주체와 피해자인 타자는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체와 타자라는 개념은 고정된 것이 결코 아니다. 주체와 타자는 입장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제라는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조선인인 타자로 규정된다. 반면에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식민지의 현실을 비판하는 민족적, 저항적 주체이고 일제는 식민지의 대타자가 된다. 이런 점에서 주체와 타자라는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김정환의 소설은 지배층인 주체와 피지배층인 타자가 선악의 이분법적 서사 구조 속에 명료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김정환은 지배층의 위선과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서사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서사 전략은 주체와 타자의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지 못한다. 주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타자일 수 있고, 타자인 것이 주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김정환의 소설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대개 봉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뱃재」에서 고장난 버스에 탄 일본 순사와 대동아전쟁에 참여하는 조선인 학병을 모두 식민지의 주체로 분류한 김정환의 문학적 형상화는 단순한 이분법의 결과이다. 일본인 순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조선인 학병이 민족적 비판 의식을 표출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친일적인 조선인 학병의 모습이 기만적 위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학병으로 나간 것도 자신이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족들이 일제의 탄압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아쉽게도 김정환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이 이분법적 대립 구도 속에서 소멸한다. 송 노인은 죽은 이들에 대한 동정심을 표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표피적 차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분법적 서사 구조가 주체와 타자의 다양한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적 타자의 발견을 통해 민중의 권익을 찾아주려는 작가 김정환이 서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몽적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대립의 서사는 1970년대 민족문화과

1980년대 민중문학에서도 반복 재현된다. 다시 말해 김정한의 이원적 대립구조는 작가 자신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고한 적과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명성일 수 있다. 그렇지만 김정한의 개별 소설에서 주체와 타자의 다양한 가능성을 성찰하는 소설이 별로 없다는 것은 아쉽기만 하다.

3. 민중적 타자의 복원과 근대화 비판

김정환은 문단 복귀작인 「모래톱 이야기」(1966)의 서두에서 소외된 타자들에 관한 “그 기막힌 사연들조차, 마치 지나가는 남의 땅 이야기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버려져 있는 데 대해서까지는 차마 묵묵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⁸⁾라고 서두를 시작한다. 이처럼 김정환의 글쓰기는 현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달리 하소연할 곳 없이 고통과 절망을 겪는 민중들의 사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김정환의 소설에 나타나는 타자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을 보인다. 첫째, 부유한 절과 지주 등 폭력적 자본가나 근대화에 의해 고통 받는 궁핍한 농촌과 농민의 모습이다.(「사하촌」, 「항진기」, 「기로」, 「모래톱 이야기」, 「축생도」, 「평지」, 「독메」, 「위치」) 둘째, 일제의 탄압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 당하거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인물이다.(「어둠 속에서」, 「수라도」, 「사뱃재」, 「회나뭇골 사람들」,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 「낙일홍」, 「설날」, 「위치」) 셋째, 해방 이후 한국전쟁, 반공이데올로기, 근대화, 가난으로 인해 소외된 인물이나 도시 빈민이다.(「뒤틀기미 나무」, 「슬픈 해후」, 「꿈」, 「지옥변」, 「교수와 모래무지」, 「굴살이」) 넷째, 질병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병자들이다. 특히 김정환의 소설에서 나환자가 자주 등장한다.(「옥심이」, 「제3병동」, 「인간단지」) 다섯째, 가부장제와 가난이라

8)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인간단지』, 앞의 책, 11쪽.

는 이중고 속에서 소외된 여성들이다.(「기로」, 「옥심이」, 「굴살이」) 이 중에서 김정환이 지속적으로 형상화한 것은 궁핍한 농촌과 농민들의 모습이다. 김정환은 궁핍한 농민의 삶을 통해 일제식민지와 해방 이후 근대화의 문제점을 환기시킨다. 일제식민지 시기에 창작된 작품의 경우 당시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했기에 농민의 문제는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집약시키는 축약도 역할을 담당한다.

김정환은 1931년에 『학지광』에 「구제사업」이란 단편을 실었지만 검열에 의해 전면 삭제 된다. 일반 독자들이 김정환의 작품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932년 『문학건설』에 발표한 단편 「그물」을 통해서이다. 「그물」은 마름의 농간에 의해 소작권을 빼앗겨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 한 소작농민의 절박한 처지를 그리고 있다. 송또줄은 마름인 김 주사가 5원이라는 뇌물을 달라는 요구에 돈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것에 앙심을 품은 김 주사는 지주에게 거짓을 고해 송또줄의 소작권을 박탈시킨다. 이 사실에 분개한 송또줄은 50원을 주면 친구의 논을 대신 주겠다는 김 주사의 기만적 술책에 항거하다가 다음 지문처럼 집단 폭행을 당한다. 송또줄은 비록 소작권의 박탈 속에 생존권의 위기에 봉착하지만 친구의 논을 가로채지 않는 윤리 의식과 민중적 연대감을 표출한다. 이러한 건강한 농민상은 불의와 체제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는 작가의식이 적극 반영된 것이다.

“뭐? 배부른 소리?” 하고 또줄이는 참다 못해서 그에 다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 “배고프면 그래, 괜이 죄없는 사람의 논을 떼어? 응? 이 늙은 도적놈아! 춘삼이가 그래 무엇이 나빠? 5원에 속았지만 50원에 안 속는다, 이 자식! 아나 50원! 못된 쥐새끼 같은 놈 같으니! 누구를 또 속일라고?”

“이런 망칙한 놈이 있담? 늙은 사람을 대해서……. 애 태식아 어서 와. 이놈 잡아내 --”

말이 끝나기 전에 또줄이는 머리 위에 어떤 무쫄한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굶다란 방망이었다. 때린 것은 김주사의 큰아들--태

식이었다.⁹⁾

김정한의 출세작인 「사하촌」(1936)은 지주인 중과 그 식솔들이 사는 보광사와 보광리, 그리고 소작농들이 사는 성동리의 이원적 공간의 대립 구조로 서사가 전개된다. 가뭄이 들어 성동리 소작인들은 제때에 물을 공급 받지 못하는 데에 비해, 보광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물을 풍족하게 공급 받는다. 가뭄으로 인해 농촌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보광리 젊은 사람들은 타자인 소작농의 고통을 헤아리기보다 세 월 좋게 해수욕을 다녀온다. 반면에 가난한 성동리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망치게 되어 추석이 와도 돈이 없어 명절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성동리의 아이는 땀나무를 줍기 위해 보광사 소유의 산에 들어 갔다가 산지기에 쫓겨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고 만다. 마름은 지주의 편에 붙어 소작인을 착취하고, 소작료를 계산하려 나온 술 취한 중은 소작인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작료를 높게 책정한다. 성동리의 땅에 입도차압의 팻말이 붙고, 빚을 이기지 못한 소작인은 야간도주를 한다. 지주인 보광사의 야만적 처사 앞에서 민중적 타자인 치삼노인과 들깨 등의 성동리 사람들은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일어선다. 이처럼 소작농을 소재로 한 김정한의 소설에서 작중인물의 위기는 지주 계층의 억압적 수탈과 궁핍한 농민의 절박한 현실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초래된다. 소작농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뭄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농사가 망쳐지거나 소작료로 많은 액수를 지불하다 보니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물」, 「항진기」의 소작농들도 마름의 농간에 의해 예고도 없이 소작권을 박탈 당한다. 소작권 박탈은 소작농의 생존권을 일시에 짓밟는 행위이다. 일부 소작농은 일본 순사에게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지만 조선인 지주 계층과 결탁한 일제는 지주의 폭력적 수탈을 그대로 방치한다.

9) 김정한, 「그물」, 『민족문학사연구』 3, 민족문학사학회, 1993, 312쪽.

김정환은 민중적 타자를 형상화하는 데에 있어 구체적 공간을 중심으로 형상화를 즐겨 한다. 김정환의 소설에서 공간성이 중시되는 것은 현실의 구체적 장면을 전달하려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사하촌」의 성동리, 「기로」의 두메 시골인 개골, 「모래톱 이야기」의 조마이섬, 「뒤틀기미 나루」에서 뒤틀기미 나루, 「인간단지」에서 외진 골짜기, 「산거죽」에서 마삿등, 「산서동 뒤틀이야기」에서 산서동 마을, 「회나무골 사람들」에서 회나무골, 「꿈」에서 쭉밭골, 「제3병동」에서 낡은 구식 건물인 제3병동, 「굴살이」에서 살아갈 집이 없는 도시 빈민이 사는 고층 도시인 공원의 토굴, 「어떤 유서」에서 근대화의 물결에 의해 골프장으로 변해버린 굽은돌이 마을 등은 거대 권력과 자본에서 소외된 민중적 타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변부의 공간이다. 특히 작가가 경남과 부산 지역의 농촌을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자주 애용한 것은 서울중심주의에서 소외된 지방을 복권시키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정환이 구수한 경상도 방언을 즐겨 쓰는 것도 리얼리티의 반영이면서 표준어 중심주의에서 소외된 방언의 타자성을 복원시키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환이 애정을 쏟는 민중적 타자들은 소작권 박탈과 같은 극한상황에 부딪치면 저항적 봉기로 맞선다. 김정환의 중요 작중인물들은 끊임없이 고뇌하며 생각하는 햄릿형보다 자신이 판단한 것을 믿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돈키호테형에 가깝다. 김정환의 소설에서 행동하는 민중적 타자상은 「모래톱 이야기」의 갈밭새 영감, 「지옥변」의 울산이 아저씨, 「산거죽」의 황거칠 노인, 「어떤 유서」의 송 노인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작중인물의 행동주의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인 실사구시(實事求是)라는 작가의 세계관이 적극 반영된 결과이다. 김정환은 「항진기」(1937)에서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집안 일을 열심히 도우는 소작농인 동생 두호의 말을 통해 관념적 사회주의자인 형 태호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레닌인가 하는 사람의 조직론만 읽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줄 아오? 조직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노상 한탄만 했지,

이 고장을 위해서 무슨 조직체 하나 만들어나 봤어요?”¹⁰⁾ 이와 같은 인식을 지닌 김정환은 카프의 현실적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당대 사회주의자들이 보여준 관념성과 도덕적 타락 때문에 카프에 가담하지 않는다.

김정환은 일제식민지 시대에는 농촌과 농민을 중심으로 일제와 지주의 식민지적 모순을 비판했다면, 한국전쟁 이후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근대화의 문제점을 농민과 도시빈민을 등장시켜 형상화한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조국 근대화는 노동자, 농촌과 농민, 도시빈민을 희생양 삼아 성취한 업적이다. 「평지」에서 허 생원은 근대화의 바람 속에 자신이 애써 가꾼 농토에서 쫓겨난다. 「축생도」와 「제3병동」에서 가난한 농민의 가족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대의 병원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숨지고 만다. 「굴살이」에서 도시빈민은 고층건물의 화려한 도시 속에서 궁핍으로 인해 공원 토굴에 산다. 김정환이 박정희가 추진한 조국 근대화를 비판한 대표적인 소설은 「인간단지」(1970)이다. 이 소설에서 나환자 수용소의 박성일 원장은 나환자에게 지급될 구호물자를 착복해 개인적 치부를 하고, 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했던 나환자들은 오히려 폭행과 감금을 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세력으로까지 등장한다. 그래서 우 노인은 깊은 산골짜기에 나환자들만 모여 사는 인간단지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통령도 문딩이는 인간이 아니라고는 못 할 거 양이가? 도처에 무슨 단지 무슨 단지들을 맨들어싸니 우리도 한 번 맨들어 보자 말이다.”¹¹⁾ 이러한 우 노인의 말은 산업단지를 중시하는 군사정권의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당시 조국근대화의 기치 속에 건설된 산업단지는 경제발전의 교두보이자 군사정권의 근대화 업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작가 김정환은 이 소설에서 민중적 타자를 상징하는 문딩이

10) 김정환, 「항진기」, 『김정환 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81쪽.

11) 김정환, 「인간단지」, 『인간단지』, 앞의 책, 271쪽.

들만 모여 사는 지역을 인간‘단지’로 호명함으로써 이곳이 산업‘단지’처럼 소중하게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나 우대받아야 할 ‘인간단지’는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의 방치와 인근 마을사람들의 배척에 의해 없어질 운명에 처한다. 김정환은 산업단지가 우대되고, 오히려 인간단지가 폄하되는 현실을 통해 산업단지로 대변되는 압축적 근대화에 대해 우회적 비판을 했던 것이다.

4. 강한 민족주의와 계몽적 거대서사

김정환은 일제식민지, 해방, 한국전쟁, 분단의 심화라는 역사적 격변을 고스란히 체험한 세대이다. 김정환은 이 과정에서 약소국인 한민족의 운명이 큰타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역사를 절실하게 체험한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민족이 대동단결하여 큰타자와 맞서야 한다는 신념을 내면화 한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대다수의 일본 유학생들은 서구적 담론이나 일본의 영향 속에 조선에 대한 부정과 서구적 조선을 꿈꿨다. 이에 비해 김정환은 비록 일본 유학을 했지만 자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폄하하지 않는 주체적 태도를 견지한다. 김정환은 당시 진보적 일본 유학생들이 유행처럼 동조했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공감했지만 민족을 도외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가 김정환은 시인 이형기와의 대담에서 “작가는 자기 개인보다도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해 있는 사람이야. 집단을 위한 사명감이 없거나 약하거나 하면 나는 실망감을 느낀다구.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 우리는 모두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집단의 한 사람이야. 이 사실을 투철하게 인식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옳게 인식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해. 집단을 외면하지 말고 그 집단의 빛과 소금이 되라.”¹²⁾라고 언급하면서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한 문학의 뿌리는 강한 민족주의이다. 백낙청은 1970년대에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을 <민족문학>”¹³⁾으로 규정하면서, 피지배층인 다수 민중이 중심이 되어 분단 모순의 심화 속에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자는 차원의 민족문학론을 제기한 바 있다. 조국과 민족을 강조하는 김정한의 문학은 당시에 이러한 민족문학론을 구현한 대표적 문학으로 평가되었다. 민족주의자인 김정한이 보기에 해방이 되었다면 독립투쟁 등 일제에 항거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 받아야 하고 가난한 서민들은 예전보다 좀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게 전개된다. 「수라도」와 「지옥변」처럼 항일투쟁을 한 집안은 해방 이후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친일인사들이 미군정과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극우반공독재체제에 편승해 남한 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한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친일인사를 중용하여 민족정기를 훼손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김정한의 역사인식은 「독메」에서 “해방이 되어도 핏값을 못 찾은 땅! 비뿔 납작한 초갓집들이나 거기에 깃들여 있는 찰가난은 아직 예나 크게 다를 바 없다.”¹⁴⁾라는 구절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정한이 보기에 해방 이후 조국의 현실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민중적 타자들의 형편은 예전과 별 차이가 없다. 김정한은 해방된 조국을 타락시키는 거대 권력과 자본을 헐뜯은 내지 위선자로 명명하며 분노한다. 이때 “김정한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정한 계급에 속하는 집단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¹⁵⁾ 김정한의 소설에서 정치적 권력과 자본은 상호 결합되어 있다. 김정한은 지배층을 비판하지만 그것의 심층적 양상은 잘 드러나지 않고

12) 이형기, 「회견체로써 본 김정한론」, 『요산문학과 인간』, 오늘의문학사, 1978, 146쪽.

13)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124-126쪽.

14) 김정한, 「독메」, 『인간단지』, 앞의 책, 242쪽.

15) 김준현, 『김정한』, 앞의 책, 185쪽.

모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적 한계가 낳은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이데올로기의 득세 속에 1950년대에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이, 1960년대초 대표적 진보지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이 체제의 탄압 속에 사형 당한다. 문학계에서는 1965년 남정현의 「분지」가 문제 되어 구속 당하는 필화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극우사회에서 진보적 비판 담론이 있을 공간은 극도로 협소해진다. 「인간단지」에서 보듯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담론이나 민중적 타자는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 채 오히려 병으로 규정된다. “정신상의 병—불의와 부정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혐잡매와 위선자를 고발한다, 규탄한다, 이것이 병이란거다.”¹⁶⁾ 당대 지배층 내지 주류는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오히려 전염병과 같은 부정적 기표로 규정하여 탄압한다. 여기서 미셀 푸코가 언급한 것처럼 지식과 권력이 결합하여 ‘거짓’을 ‘참’으로 호도하는 지배층의 여론 조작이 생산된다. 그러면서 악이 정의가 되는 비정상적 세계가 도래한다. 일반 대중들은 지식과 권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김정환은 일시적으로 역사의 진실을 억압하거나 은폐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감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타자를 전염병이라는 기표로 규정하는 주체의 억압적, 폭력적 태도는 오히려 타자에 대한 주체의 불안감을 표출한 것일 수 있다. 작가 김정환은 1961년 5·16쿠데타를 비판하다가 부산대 교수직에서 5년간 쫓겨나기도 했다. 김정환은 부조리한 현실을 방치하면 민족 공동체의 건강성이 훼손될 것이고, 또 다시 거대한 타자에 의해 한민족의 운명이 농락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김정환은 계몽적 거대서사를 통해 조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자구적 움직임을 전개했던 것이다. 그래서 김정환의 소설을 읽어보면 조국과 민족의 현실을

16) 김정환, 「인간단지」, 『인간단지』, 앞의 책, 261쪽.

말하고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발언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거족」에서 작가를 대변한 황거칠 노인은 조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소수 특권층의 사적 전유물로 전락한 것에 분노한다.

이루 셀 수 없는 조국의 어여쁜 꽃들이 산을 온통 수놓듯 했는가 하면, 찌르르 하는 풀벌레 소리들이 한결 가을을 느끼게 했다. 물결 꽃향기가 코를 찌른다.

황 거칠씨는 문득 조국의 향기를 맡은 듯 했다. 숲재 어떤 행복감에 젖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왜 이러한 아름다운 산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독차지 돼야 하는가?> 하는 노여움에 다시 사로잡혔다.¹⁷⁾

김정환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당대 역사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는 김정환 문학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실천적 문인상을 후배 문인들에게 제시한다. 김정환의 비판적 저항문학은 단절되었던 민족문학의 전통을 부활시키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한다. 김정환은 자신의 소설에서 민족정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서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한다. 민족 공동체로서의 자각은 언어공동체, 지역공동체, 문화공동체가 계속 유지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 김정환은 「어둠 속에서」 김인철 교사를 통해 조선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지역공동체에 있어서는 경남과 부산을 포함하는 낙동강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려 민족적 지속성과 지역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한다. 이때 토속적 방언은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산한다. 이외에도 김정환은 「수라도」와 「독메」에서 민족정기를 수호한 뼈대 있는 조상들과 토속적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킨다. 민족을 강조하는 서사 전략 속에 가족도 강조된다. 김정환의 소설에서 민족은 혈연과 결혼으로 뭉쳐진 가족의 확대된 형태이다. 김정환의 소설에서 민족은 근대의 역사적 산물이

17) 김정환, 「산거족」, 『인간단지』, 앞의 책, 308쪽.

아니라 초역사적 기표로 자리한다. 그래서 「옥심이」의 「옥심이」와 「기로」의 「은파」처럼 집을 나간 여성들은 다시 남편과 아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회귀형의 서사 구조를 보인다.

민족주의의 강조는 김정환 소설의 이원적 대립 구조와 맞물려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사의 형태로 작품에 등장한다. 그러면서 김정환의 소설에서 친일인사, 부패한 인물, 비인간적 자본가 등은 ‘참된 한민족 내지 조국’의 범주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에 기반한 김정환의 선명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의 제시는 지배층의 주체가 민중적 타자를 차별하고 배제한 것처럼 양상은 다르지만 지배층이라는 주체를 ‘참된 한민족과 조국의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는 이 판정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할 뿐더러 지배층이라는 주체도 다양한 층위가 있을텐데 김정환의 문학에서는 이것을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정구는 1970년대 이후의 민족문학론이 ‘지배층의 억압/피지배층의 피억압’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로 전개되면서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구분법에서는 현실 관계의 복잡성은 무시되기 쉽다. 지배권력의 근대화 노력은 허위와 거짓으로, 그리고 저항의 논리와 실천은 진리로 단순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한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층위에서 억압하면서 동시에 억압되는 존재들의 복잡한 그물망도 간과되기 쉽다.”¹⁸⁾ 민족문학론에서 ‘억압적 주체/저항적 주체(또는 저항적 타자)’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강조되었던 것은 민족적, 민중적 타자의 소외성을 강조하여 그것의 극복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부적 측면이 무시된 것은 사실이다.

김정환의 소설에서 ‘우리’라는 주체의 동일성은 강조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이거나 주체의 동일성이 타자에게 강요

18) 강정구, 「1970~90년대 민족문학론의 근대성 비판」, 『국제어문』 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296-297쪽.

되는 것은 아니다. 김정한의 소설에서 ‘우리’가 강조되는 것은 큰타자인 ‘그들’에 의해 ‘우리’의 주체적 권리가 봉쇄되거나 침해당했을 경우이다. 김정한의 문학에서 일본 민족이 우호적으로 등장하는 대표적 단편은 「산서동 뒷이야기」(1971)이다. 이 소설에서 일제식민지 시기에 소작농이자 일본인인 이리에쌍 가족은 조선인들과 격의없이 함께 어우러져 산다. 여기에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대립적 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인 중에서도 서민이었던 이리에쌍은 가난한 조선인들과 함께 산서동 부락을 만들고, 가뭄과 홍수와 지주와 싸운 동지였던 것이다. 이 소설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 다른 민족과 계급적으로 연대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박노인과 나미오의 연대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기나와에서 온 편지」(1977)도 돈을 벌기 위해 오기나와에 노동자로 수출된 한국의 젊은 여성을 잘 대해주는 일본인 다께오 노인을 통해 ‘우리’와 ‘그들’ 사이의 소통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김정한의 소설들은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계몽적 거대서사를 전개하면서도 민중성을 기준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연결된다. 김정한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국가와 민족이라는 고정적 경계의 틀을 넘어 계층적으로 연대하는 탈국가적 상상력의 단초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김정한의 소설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범할 수 있는 소비니즘과 파시즘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한의 소설에서 개인들은 언제나 가족, 민족, 조국이라는 집단적 거대서사로 환원되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김정한의 소설에서 집단과 분리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5. 타자의 문학적 형상화

역사와 현실을 강조하는 김정한은 강한 민중 지향성 속에 반민족적, 반인간적인 것에 저항하는 문학이다. 작가 김정한은 거대권력과 자본에

의해 침묵을 강요 당할 때 분연히 일어나 그것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민족적, 민중적 타자를 옹호하는 소설을 쓴다. 이러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다수의 문인들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연히 보여준 작가의 굳은 의지와 용기이다. 그렇다면 김정환의 소설에 나타난 타자들은 문학적 형상화가 제대로 되었을까. 1990년대 이후 연구자들이 대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문학적 형상화의 미흡이다. 조정래는 “김정환의 정신을 시대적 값어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문학적 의미는 크게 부여하기 어려운 안타까움을 부인할 수 없다.”¹⁹⁾ 고 말한다. 또 이기인은 조정래의 비판보다 다음의 예문처럼 더 신랄하게 김정환 문학의 문학적 한계를 지적한다.

김정환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형상화하는 데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의 작품이 민중의 고통을 묘사하거나 민중을 억압하는 권력의 일면을 폭로·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작품의 중심 구조로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 즉, 문제의식은 분명하지만, 충분한 형상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생경하게 제시된다.²⁰⁾

필자는 조정래와 이기인 등의 비판적 견해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작가 김정환은 당대 사회의 첨예한 구조적 모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 있어 탁월하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반드시 타자의 문학적 형상화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창작된 작품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리얼리즘의 형상화가 이루어졌다면, 1966년 이후 창작된 다수의 작품들에서 문학적 형상화는 생생하게 표현되지 못한 채 추상적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리얼리즘을 지향한 김정환의 소설에서 생생한 리얼리즘의 전형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은 왜일까?

19) 조정래, 「현실을 보는 눈과 역사를 보는 눈」, 『김정환』, 앞의 책, 208쪽.

20) 이기인, 「김정환 소설의 심미성과 작가 의식」, 『김정환』, 앞의 책, 165쪽.

최근에 구모룡은 「21세기에 던지는 김정한 문학의 의미」에서 “실제 요산은 리얼리즘의 규범이나 완결된 소설미학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보다 그는 제국과 국가의 폭력에 신음하는 민중의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 했고 그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증명하려 했다”²¹⁾고 옹호한다. 김정한의 문학을 리얼리즘과 분리시키는 구모룡의 논리는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김정한의 문학을 비판한 입장들에 대한 수세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김정한의 문학을 리얼리즘으로 보지 않으면 리얼리즘을 통해 민족문학의 정통으로 인식되어온 김정한 문학의 문학사적 위치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구모룡의 주장은 그 동안 김정한의 문학을 리얼리즘으로 보고 연구해온 업적들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논리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김정한 문학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김정한 문학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정한 소설에서 타자의 문학적 형상화가 미흡했던 요인은 먼저 상상력의 도식성이다. 김정한의 소설에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는 주체, 못 가진 자는 타자라는 이원적 대립의 형태로 서사가 전개된다.²²⁾ 이때 주체는 악이고, 타자는 선이라는 권선징악의 형태를 띤다. 이 과정에서 주체와 타자라는 작중인물은 입체적이지 못하고 평면적 성격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수라도」 「지옥변」 「독메」 등에서 보듯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뼈대 있는 집안은 자손들도 유서깊은 전통을 따라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한 마디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집안은 조상 때부터 그러했다는 식이다. 이에 비해 반민족적, 반민

21) 구모룡, 「21세기에 던지는 김정한 문학의 의미 -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요산의 문학」, 『창작과비평』, 2008 가을호, 361쪽.

22) 김준현은 「이원적 대립 구조와 의미의 명징성-김정한론」(『김정한』, 앞의 책, 181쪽)에서 김정한 소설의 이원적 대립 구조를 작가에 의해 의도된 치밀한 서사전략으로 파악한다. 김정한은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한 비판정신과 저항정신을 의미의 왜곡 없이 독자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이원적 대립구조를 전개했다는 것이다.

중적 집안은 윗대에서부터 그러한 속성을 보이는 부정적 인물이 등장하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식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는 민족 정기를 지키기 위한 김정환의 역사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그것은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 인물의 도식성을 낳게 한 요인을 제공한다. 인물의 도식성은 서사 전개에 있어서도 무리수를 두게 된다. 「독메」(1970)에서 노름과 술을 좋아했던 사위 윤 서방은 민족적 의개를 지닌 조상이 있었다는 장인 강 노인의 말에 다음날부터 제정신을 차리고 성실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방탕했던 사위가 뼈대 있는 조상이 있다는 말에 하루 아침에 정신을 차리는 모습은 민족적 정기를 강조하는 김정환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현실적 리얼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환 소설에 나타난 서술자인 화자와 민중과의 일정한 거리감도 타자의 문학적 형상화가 미흡하도록 만든 요인이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창작된 김정환의 소설은 화자와 민중적 타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예를 들어 「그물」과 「사하촌」에서 서술자와 작중인물은 분리되지 않고 밀착되어 있어, 일제식민지 시대의 소작농의 전형적 모습이 비교적 생생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1966년 문단 복귀 이후 창작된 김정환의 소설에서 화자와 민중적 타자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모래톱 이야기」에서 중학교 교사인 화자인 나와 조마이섬의 갈밭새 영감, 「수라도」에서 화자인 가야부인의 손녀 분이와 가야부인,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에서 화자인 작가와 오끼나와에 간 여성노동자, 「굴살이」에서 화자이자 작중인물인 교수 대 굴택인 밤순이 사이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문제는 이 거리는 화자가 작중인물을 바라보는 비판적 거리가 아니라, 화자가 민중적 타자를 제대로 관찰할 수 없는데서 생긴 틈새라는 사실이다. 작가 김정환은 화자를 매개하지 않고 민중적 타자의 입장에서 직접 서술했다면 좀더 생생한 민중의 전형성과 생활의 총체성이 드러났을 것이다.

이것은 체험 위주로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김정한의 창작 특성에서 비롯한 측면이 있다. 김정한은 문학적 상상력으로 창작하기보다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체험의 작가이다. 이때 작가의 현실 체험은 소설적 형상화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김정한의 소설 중에서 특히 자신의 사적 체험이 많이 드러나는 소설은 「어둠속에서」, 「옥중회갑」, 「굴살이」, 「교수와 모래무지」, 「위치」 등이 있다. 김정한이 10년간 절필하다가 1966년에 「모래톱 이야기」로 복귀할 시점에 작가의 나이는 만 58세이다. 이러한 나이는 새로운 체험을 직접 많이 하기보다 타인에게서 새로운 작품 소재를 얻을 가능성이 많다. 이 당시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인 작가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다. 김정한은 민중적 타자에게서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듣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작가 자신이 그 동안 체험한 인생의 경륜과 세계관에 기반한 계몽적 거대서사를 좀더 많이 생산할 시기였다는 것이다. 고령의 나이는 민중적 타자와 격의 없이 녹아 들어가기에도 장애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1966년 이후 창작된 김정한의 소설에서 청장년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당대 현실을 생생하게 표현한 소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노년기 문학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거대 권력과 자본을 갖춘 적과 맞서기에 개인의 힘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1920년대 중반의 신경향파문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카프문학은 산발적, 개인적 저항보다 조직적, 지속적 투쟁을 통해 세상의 변혁을 시도한다. 카프문학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은 김정한은 「사하촌」과 「인간단지」에서 보듯 소외된 타자들이 상호 연대하여 거대한 주체와 맞선다. 그렇지만 김정한의 소설에서 민중적 타자들은 연대하지 않고 단독자로 싸우는 경우도 많다. 「그물」에서 소작농인 송또줄, 「어둠 속에서」의 김인철 교사, 「평지」에서 허 생원, 「모래톱 이야기」의 갈밭새 영감, 「어떤 유서」에서 송 노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싸우지만 대개 패배하는 비극적 영웅주의를 보여준다. 작가는 패배하는 민중적

타자의 영웅성을 부각시켜 주체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병걸은 김정환 소설에 나타난 영웅주의를 결함이라기보다 불가피한 소설적 카타르시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²³⁾ 하지만 이러한 영웅주의의 지속적 형상화는 민중적 타자들의 상호 연대를 방해하는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물」에서 마름에게 항의하는 송또줄, 「평지」에서 포플라밭을 마구 불태우는 허 생원, 「어떤 유서」에서 자살을 통해 거대 권력과 자본의 토지 수용에 저항하는 송 노인 등은 피지배층인 민중적 타자의 절망적 처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만 동시에 전망없는 모험주의 내지 충동적 허무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김정환의 소설에서 선악의 구분은 자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선의 편에 속한 민중적 타자들은 윤리적 고민없이 바로 거대 자본과 권력에 저항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소설적 깊이가 사장되고 있고, ‘억압적 주체/저항적 타자(또는 저항적 주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66년 이후에 창작된 김정환의 후기 소설에서 작중인물들의 충동적 행동은 당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심층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우연적, 일회적 형태로 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민중적 타자들이 조직화하여 지배 주체와 지속적으로 대결하는 세부 과정에서 구조적 모순과 생생한 민중상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 그렇지만 김정환의 후기 소설에서 이 과정이 대개 생략되면서 구조적 모순은 서술자의 추상적, 관념적 진술에 주로 의존한다. 그 결과 민중적 타자상들이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이것은 단편이라는 한계도 있겠지만 문학적 형상화보다 당면한 현실세계의 모순을 비판하여 고치려는 작가의 계몽적 욕망이 작품 전면에 적극 투영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23) 김병걸, 「김정환문학과 리얼리즘」, 『요산문학과 인간』, 오늘의문학사, 1978, 35쪽.

6. 민족문학의 계승과 타자의 미흡한 귀환

일제식민지와 한국전쟁 등 격동의 20세기를 경험한 김정환에게 문학과 삶, 조국 또는 민족과 개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조국과 민족을 중시하는 김정환의 계몽적 거대서사는 문체적 개인을 통해 당대 현실 모순을 형상화해 좀 더 나은 세계를 꿈꾼다. 이러한 그의 문학은 민중적 리얼리즘, 민족문학으로 요약된다. 김정환은 소설에서 거대 권력과 자본이라는 주체에서 소외된 민중적 타자인 농민, 도시 빈민, 병자, 여성 등을 서사의 중심에 둔다. 특히 그의 문학은 체제의 금기에 의해 발설하지 못하는 민중적 타자들의 은폐된 진실을 전달하는 데에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다. 대표적으로 「오끼나와에서 온 편지」는 1990년대에 알려지기 시작한 여자정신대 문제를 선구자적으로 언급한 작품이다. 역사와 현실을 강조하는 김정환은 당대의 소외된 타자들을 대변하는 비판적 문제제기로 시대적 금기를 깨뜨렸던 것이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창작된 김정환의 소설인 「그물」, 「사하춘」, 「옥심이」 등이 비교적 리얼리즘의 형상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966년 이후 창작된 다수의 작품들에서 타자의 문학적 형상화는 약화되고 비판적 문제제기가 강하게 등장한다. 김정환의 후기소설들은 비판적 문제제기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수라도」와 「지옥변」 등 몇 작품을 빼고는 타자의 문학적 형상화에서 취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그의 후기 소설에서 리얼리즘의 전형성과 생동감 있는 현실의 총체적 반영은 약화되어 있다. 이것은 민족과 조국의 열악한 현실을 이원적 대립 구조에 기반해 선명하게 제시하려는 계몽적 거대서사 전략의 산물이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 도덕적 엄숙주의가 작동하면서 김정환의 소설에서 미시서사인 육체, 욕망, 무의식, 개인 등의 타자들은 추방되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 김정환의 소설에서 억압된 타자의 복귀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계몽적 거대서사가 중시하는 이성, 민족, 조국, 가족 등이었다. 그렇

지만 민족주의와 높은 윤리성에 기반해 당대의 구조적 현실 모순을 비판하고 민중적 타자를 옹호한 김정한의 저항문학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노인을 서사의 중심에 두는 노년문학의 한국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원식도 “요산은 식민지 시대의 카프와 해방 직후 좌파운동의 외로운 생존자로서 4월 혁명 후 한국문학의 혁신을 위해 고민하는 새세대 민족문학운동과 행복한 상호접목에 성공한 드문 원로의 한 분이다.”²⁴⁾라고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민중과 민족 현실을 중시하는 김정한의 소설이 있었기에 1970년대 초 황석영의 「객지」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작가 김정한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길’은 작가가 지향해야 할 민중적, 민족적 지향성을 의미한다. 이때 길은 역사가 발전한다는 낙관주의적 전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미학적 장치이기도 하다. 김정한은 주체에 의해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타자들을 소설 속에서 귀환시킨다. 이것을 통해 주체와 타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유토피아를 꿈꿨다. 김정한이 꿈꾼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후대의 작가들은 김정한의 삶과 문학에서 좀더 나은 세계를 꿈꿀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한다. 삶과 문학을 일치시킨 김정한의 문학은 지행합일의 문학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를 후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역사적 사례인 것이다.

24)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 새미, 2002, 54쪽.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김정한, 『낙일홍』, 세기문화사, 1956.
_____, 『인간단지』, 한얼문고, 1971.
_____, 『김정한 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_____, 『낙동강의 파숫군』, 한길사, 1978.
《월간문학》, 《현대문학》, 《민족문학사연구》

2. 논문 및 단행본

- 강진호 편, 『김정한』, 새미, 2002.
강정구, 「1970~90년대 민족문학론의 근대성 비판」, 『국제어문』 38집, 국제어문학회, 2006.
고자카이 도시아키, 『민족은 없다』, 방광석 옮김, 뿌리와이파리, 2003.
구모룡, 「21세기에 던지는 김정한 문학의 의미」, 『창작과비평』 2008 가을호.
김광중, 「김정한 소설 연구」, 『교육논총』 14, 동국대 교육대학원, 1994.
김상수, 「김정한 농민문학의 성격」, 『국어국문학지』, 문창어문학회, 1977.
김정한, 『김정한소설선집』, 창작과비평사, 1974.
김택호, 「김정한 소설의 저항의식과 유교적 세계관」,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박태일,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 『한국문학논총』 30집, 2002.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윤희숙 옮김, 2002, 나남.
요산 김정한선생 고회기념사업회 편, 『요산문학과 인간』, 오늘의문학사, 1978, 146쪽.

- 이기인, 「김정한 소설의 심미성과 작가의식」, 『김정한』, 새미, 2002.
- 이경, 「60년대의 환부와 치유-김정한 소설론」, 『수련어문논집』, 수련어문학회, 2001.
- 이마무라 히토시, 『근대성의 구조』, 이수정 옮김, 민음사, 1999.
- 이정석, 「김정한 문학 연구의 재정초를 위하여」, 『우리문학연구』 22집, 우리문학회, 2007.
- 이형기, 「회견체로써 본 김정한론」, 『요산문학과 인간』, 오늘의문학사, 1978.
- 전성욱, 「장소사랑과 지역문학의 논리-김정한 소설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18집, 2004.
- 전승주, 「민족적 삶의 복원을 위한 역사에의 물음」, 『한국소설문학대계 김정한·최정희』 31집, 동아출판사, 1995.
- 조갑상, 「근대 지역문학으로서 부산-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4집, 국어국문학회, 2006.
- 조수웅, 「김정한 소설에 나타난 행동 문학성 고찰」,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1997.
- 조정래, 「김정한론-「사하촌」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1991.
- 최종렬, 『타자들』, 백의, 1999, 9쪽.

<Abstract>

Caring for Other People Depicted in Novels of Yo San Kim, Jung-Han

Choi, Kang-Min

Enlightening great narration of Kim, Jung-Han, who treasures motherland and a nation, dreams for a little better world by modeling contradiction of reality of that time through individuals with problems. His such literature is summarized as the public realism and national literature. Kim, Jung-Han places farmer, poor people in cities, sick people, and women, who are all public other people and alienated from the subject of huge power and capital, in the center of his narration. In particular, his literature demonstrates excellent achievements in delivering concealed truth of public others who cannot disclose by prohibition of political system. Kim, Jung-Han, who emphasizes history and reality, had broken a major taboo of the period by raising critical issues speaking on behalf of alienated other people of that period. If novels of Kim, Jung-Han created during Japanese colonialism period such as 「Net」, 「Saha Village」, 「Oksimi」 had realized modeling of realism, then in his numerous novels created after 1966, literary modeling had become weakened and raising critical issues had appeared strongly. The resistance literatures of Kim, Jung-Han, who had protected public others by criticizing structural contradiction of the reality based on nationalism and high level of ethics, shall be evaluated highly.

Key Words : Kim Jung-Han, subject, other, people, national, enlightening great narration, national literature, resistance literature, realism, modernization